

저녁운동 포기하지마

“운동해라.”밥을 먹고 쉬고 싶은데,엄마의 말씀이 내게 들려왔다. 오늘도 힘들다... 하지만 막상하면 재밌다 .그래서 운동을하기로 결심하고 나 혼자 밖으로 나갔다. 나갈 때 너무 귀찮은데..게다가 무거운 보드까지 들다니..기죽은 채로 밖으로 나갔다.

난 운동장으로 도착했다. “헐”소리가 났다. 내 친구와 만났다. 그것도 같이 롱 보드가 있는 친구! 우리는 같이 타기로 하고, 보드를 내려놓고, 본격적으로 타기 시작했다. 롱 보드를 타며 계속 실력을 키워간다. 얼굴은 차가우며 몸은 땀이 났다. 난 잠시 친구와 벤치에 앉아 쉬며 땀을 식혔다. 다시 롱 보드를 바닥에 놓고 빠르게 달렸다. 벌써 1시간이나 지났다. 숨이 차올랐고’나는 집 앞 신호등에 와 있었다. 내일은 무슨 동작을 해볼까? 내일도 그 친구를 만나면 좋겠다..그리고 내일은 무슨 연습을 해볼까..

잠시 생각에 빠졌다. 나는 매일“내가 나중에는 어려운 동작도 해낼 수 있을까?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..뭐 그건 나중이나 알아보지. 친구와 헤어지고 나는 집 문 앞에 와 있었다. 집으로 들어가자마자 물을 벌컥벌컥 마셨다. 운 정말 힘들지만 힘든 만큼 뿌듯하다는 걸 느꼈다.

